

# 광주·전남 문 달은 민간 어린이집 198곳

(최근 3년간)

### 출산율 감소·가정수당 등 영향 갑작스런 폐원 혼란 우려 국공립 치중 정책 변화줘야

#### ■ 지난해 폐원한 민간 어린이집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문을 닫은 광주·전남지역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신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전국 민간·가정어린이집 1320곳이 폐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3만 3701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약 4%(지난해 연말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민간·가정어린이집 4531곳 가운데 288곳이 문을 닫아 폐원을 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 71곳

(5.8%), 대전 72곳(5.3%), 전북 57곳(4.8%) 순이었다. 광주는 25곳(2.4%), 전남은 36곳(4.1%)이 각각 폐원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811곳, 2016년 2174곳, 2017년에는 1900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상반기 추세로 볼 때 2018년 폐원율은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범위를 확대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 숫자를 살펴보면, 전국에서 총 7205곳이 문을 닫

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국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 3만2705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역은 지난 3년여간 79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간판을 내렸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5곳, 2016년 21곳, 2017년 28곳, 2018년 6월 현재 25곳이었다. 전남에서는 지난 3년여간 119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현재 남아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개수는 851곳. 전남에서는 지난 2015년 15곳, 2016년 31곳, 2017년 37곳, 2018년 36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폐원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민간·가정어린이집 1284곳이 문을 닫아 현재 4231곳이 운영 중이다. 부산은 182곳이 문을 닫고 1546곳이 운영 중이며, 대구는 281곳이 문을 닫고 1138곳이 운영 중이다. 대전은

313곳이 폐원, 1288곳이 남아있고 전북은 243곳이 폐원, 1116곳이 남아있다. 정부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격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을 10년 이상 장기 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어린이집 정책의 초점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주로 맞춰져 있어 폐업률이 늘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신 의원 측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급증하는 민간어린이집의 폐원은 출산율 감소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수당 도입 및 직장어린이집의 증가 등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라며 "보육 취약 지역의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갑작스런 폐원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 학교 석면 제거 공정 까다로워진다

### 청소·모니터링 3차례 의무

광주 초·중·고교 건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앞으로는 사전·사후·준공 후 등 3차례 정밀 청소를 해야 한다.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단 승인 없이는 단계별 석면 제거 공정을 진행할 수 없도록 관련 사업 메뉴얼도 강화했다. 광주시교육청 석면 제거 기획단(TFT)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사업 세부 메뉴얼 최종안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교 석면 제거 공사를 하면서 3차례 이상의 청소와 3차례 이상의 모니터링을 한다. '사전 청소' 절차를 신설해 이사 수준

의 교실 집기류 반출을 먼저 하도록 했으며 건축과 습식 청소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했다. '사후 청소'도 견식·습식 청소를 함께하고 석면 의심 잔재물을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판단되면 감리원에게 1차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별로 운영되는 석면 모니터단은 학부모 2~4명, 교장·교감, 환경단체 1명, 감리원 1명, 공사 감독 1명 이상, 환경부 파견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다. 모니터단은 공사 사전 설명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출하고 각 공정 단계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모니터링에 합격해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고 합격하지 못하면 모니터단이 재시공 또는 청소 반복 조치 등을 결정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호남대 개교 40돌 기념식 500명 참석

호남대학교(총장 서강석)는 최근 광주 시 광산구 여동대로 417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개교 40주년 기념식을 열고 4차산업혁명시대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다짐했다.



이학원 호남대학교 40주년 기념식 및 명예박사 학위수여식

호남대는 최근 광주시 광산구 호남대 문화체육관에서 개교 4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교직원 등이 캠퍼스에서 새로운 100년을 기약하고 있다. <호남대 제공>

'호남을 이끈 40년, 세계로-미래로'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박기인 학교법인 성인학원 호남대학교 설립자 겸 이사장과 서강석 총장, 박상철 부총장을 비롯해 손시엔위 주광주중국총영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5만여 인재를 배출한 호남대는 그동안 교육부 대학평가 최우수대학, 교육개혁 우수대학, 산학협력선도대학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올렸다. 올해에도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교육부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뽑혔다.

호남대는 세계 19개 국가 236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통해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자학원, 광주시차이아센터 운영, 중국 상하이대 2+2 복수학위제 등을 통해 중국특화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서강석 총장은 "호남대는 지난 40년 동안 호남의 발전을 선도해 왔듯이, 다가올 40년, 백년을 이끌어 가야 할 사명을 부여 받고 있다"며 "광주·전남 유일의 4차산업 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서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동신대 '나주학연구소' 본격 추진

### 22일 나주시청서 시민공청회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고영혁 교수)은 나주시 역사도시사업단과 22일 오후 4시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나주학연구소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학원 연구소 임승배 소장(원광대 교수)은 1부 행사에서 '지역학 연구의 필요

성'을 주제로 특강한다. 김춘식 동신대(에너지시스템경영공학전공) 교수는 "나주학연구소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연구"에 대한 중간 보고를 한 뒤 시민과 전문가들이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에는 나주 시민들과 역사·문화·예술·정치·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 나주시 담당 부서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

정이다. 지역학 연구의 필요성과 나주학 연구소 건립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나주 시민 누구나 사전 등록 없이 무료로 공청회에 참가할 수 있다. 고영혁 동신대 산학협력단장은 "천년 나주의 전통과 미래 천년 나주의 발전을 위해 나주의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과학기술, 예술에 대한 포괄적이고 선도적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공청회가 연구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대 학생들 '11주 독서클럽' 마무리

### 최우수 클럽 등 시상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대 호심기념도서관은 최근 '서(書)로 만남 독서클럽' 시상식을 가졌다. '서(書)로 만남 독서클럽'은 학생들의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학기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학기 프로그램은 지난 3월부터 11주 동안 10개 클럽에 학생 50여명이 참가했다. 호심기념도서관은 독서모임 성실도, 독후감 작성, 독서 토론 등을 평가해 '소망보다 대망' 팀(김인애씨 등 5명)을 최우수 클럽으로 선정했다. 김인애씨는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만나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생각을 나누면서 보다 유익한 사고를 할 수 있게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독서클럽 학생들은 회의 공간과 다과 지원, 독서클럽 지정 도서 우선 지원, 학내 장학마일리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호심기념도서관은 '서(書)로 다독다독(多讀多讀)' 2018-1학기 전자책·오디오북 다독상' 시상식도 가졌다. 전자책·오디오북 다독상은 학생들의 대독 권수 등을 평가했으며 전자책 다독상은 최고은, 오디오북 다독상은 박동혁 씨가 받았다. 광주대는 '서(書)로 만남', '서로 다독다독' 뿐 아니라 장애학생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돕는 '서로 동행', 아동 도서를 지역 사회에 기부하는 '서로 나눔' 등 다양한 독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서(書)로 만남": 독서클럽 시상식



광주대학교 호심기념도서관은 최근 학생들의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서(書)로 만남 독서클럽' 프로그램에서 우수클럽 시상식을 열었다. <광주대 제공>

**백운광장역 상가분양**  
양우내안에 주상복합 상가

**6월 15일 내정가 공개입찰**

상가 전용 주차장 100여대 이상 확보!

지하철 역세권 스트리트몰이 투자대세!

백운광장 200M 역세권 스트리트 상가

**1522-9477**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